

##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예술

배현정(Marie-Helene Brasseur)

AFI(국제가톨릭 형제회 회원) · 전.진.상 의원 가정호스피스 의사



**이** 소중한 지면에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내 삶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1946년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까지 도시인구의 10%가 외국인이었던 한 탄광지역, 석탄이 많이 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약사였던 관계로, 나는 어릴 적부터 질병과 고통의 곁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활동했던 본당의 청소년 단체 활동(Patro)을 통해서 나의 바탕이 되는 크리스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운동을 통하여 나는 열려진 마음과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치를 배웠고 자기자신을 초월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길에 기초가 된 것입니다.

15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의 <<성소>>(Vocation)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보다 덜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에 나의 온 생애를 바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간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2년 후에 나는 벨기에에 있는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크리스천 평신도 단체로 卍.眞.常 정신으로 생활함)에 입회하였고 몇 년 동안의 수련을 받고 서약한 후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때가 1972년. 당시 한국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었고 농촌의 인구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

로 모여들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직도 조직화된 사회보장제도가 아무것도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2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나서 1975년, 자신들의 모든 талан트를 이웃을 위한 봉사에 바치려는 몇몇 A.F.I 회원들과 팀을 조직한 후 우리는 서울특별시 당시 영등포구 시흥동에 위치한 판자촌, 인구 35,000여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에 자그마하게 전.진.상 의료사회복지 센터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우리는 교회의 요구와 특별히 김수환 추기경님의 요청에 따라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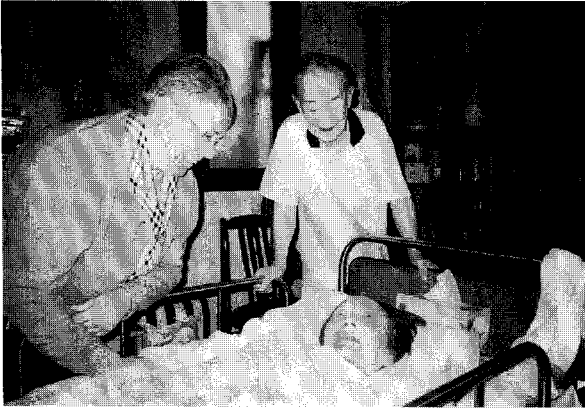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가난한 교회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해 주는 교회를 원했지만 정작 이러한 일에 개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은 바로 밀가루 반죽 속의 누룩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영세민 주말 일반진료로 시작했던 일이 몇몇 전문과목 진료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상주 의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공부를 시작하였고, 1985년 의사자격증을 얻게 되었으며, 곧 이어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의원에서 외래환자들을 진료하는 것 외에 집에 계신 중환자들을 위한 방문 진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왕진진료를 실행하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밤이든 낮이든 항상 응급상황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한 초기부터 늘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직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우리 전.진.상 의원에 특별히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얼마 후 낮 병실을 마련하였고 며지않아 12여 병상을 갖춘 입원실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죽음을 앞 둔 환자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삶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는 의학이 환자에게 눈에 띄는 의료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완화의료란, 의료인들이 직감적인 인식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초 위에 행하는 의료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게 되고, 환자에게 그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적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치유와 그 후 생활을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질병을 견디어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치유적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상 삶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중

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재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환자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질 않지만 만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들에게는 평화의 샘이 솟을 것이고 평온함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하면서 나에게 자주 크게 와닿는 것은 환자들이 표현하는 강력한 삶의 의지입니다. 살아있는 힘은 아주 빈번하게

불과 죽기 며칠 전까지 남아 있음을 봅니다. 환자들은 생을 마치기 전에 아직도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반했던 환자들 중 드물게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기간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강렬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자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깊이 있는 말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몇 환자들이 나에게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기간”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나를 감동케 하며, 고통과 존재의 신비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도 합니다

모든 완화의료 활동에서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드문 이유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 멤버들이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것이고, 환자 곁에 앉아서 시간을 함께 하며, 또한 그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